

낮엔 ‘주차전쟁’...손님 끌기 밤엔 ‘을씨년’

긴급점검 무등산 중심사지구

〈상〉 현황과 실태

광주시와 화순·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이다. 연간 350만명의 관광·등산객이 찾는 광주·전남의 대표적 명산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무등산의 관광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광주 동구 중심사지구다. 중심사지구는 지난 2010년 조성 이후 무등산 탐방객 만남의 장소 등으로 애용돼 왔지만, 조성 12년이 흐르면서 협소한 주차장, 국립공원지역 영업제한 등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심사지구의 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주

광주 동구 중심사지구 무등산 상가거리가 빈약한 관광 인프라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매년 수백 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숙박시설 등 영업이 제한되다보니 등산만 가능한 공간일 뿐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가주민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물가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실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 운림동 중심사지구는 총 사업비 742억원 투입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등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현재 중심사 지구에는 부지 1만 3,038㎡로 구성됐으며, 등산용품점과 토속음식점 등 상점 4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등산용품점·음식점 등 40곳 영업

국립공원 묶여 숙박업 영업 제한

심야 관광객 등돌려 상인들 울상

중심사지구 상가단지 주차장은 총 77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운림동 422-1번지에 위치한 중심사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408면, 버스 30면, 장애인 10면 등 총 44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사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애초 상점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지만, 중심사 일원에서 식당 등을 운영해온 상인들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영업권을 보장 받게 됐다. 이에 상인들은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현재 소매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심사지구는 생태와 관광의 거점이 돼 하루 평균 8,000여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지구 상가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이 등산객과 차량 등으로 크게 붐비고 있다.

/김생훈 기자

됐지만, 현재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탓에 주차 문제로 인한 접촉사고, 불법주차, 교통불편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 이 모씨(48)는 “주말이고 평일이고 이곳은 항상 주차전쟁이 일어난다. 1km정도 떨어진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그곳도 주차장이 꽉 차있고 너무 멀리 조성돼 불편하다”며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차장 개선, 추가 설치 등 현실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중심사지구가 국립공원지역에 포

함된 탓에 숙박업 등이 제한돼 밤에는 손님이 뜰 수밖에 없다. 상가주민 A씨는 “현재 국립공원지역으로 포함돼 가로수 정비, 가로등 관리 등 풀 한 포기 나뭇가지도 뽑거나 자를 수 없다”며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시켜 숙박업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제한된 사업이 많아 밤에 관광객을 끌만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관광객들 또한 찾지 않는다”며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적자에 시달려 힘든상황이다. 하루 빨리 대책이 세워지

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심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 소매와 음식점 등만 허용해 어떤 형태로든 숙박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등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수년째 제기된 문제점으로 시, 관리공단에서도 조치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민원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심상찮다’

신규확진 ‘더블링’...재유행 대응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주간 단위로 2배가 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662명(해외 6명), 전남 754명(해외 7명) 등 총 1,416명을 기록했다.

광주는 휴일인 지난 10일 2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주 전인 4일 28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1주일새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남도 지난 10일 236명, 1주 전인 4일 385명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 신규확진자 합계에서도 이날 1,416명을 기록해 10일 503명, 1주 전 665명에 비해 마찬가지로 2~3배 늘어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시도 방역

당국도 대응 방안 정비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날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324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검사,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을 모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156곳을 지정했다.

전남도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격리병상 134병상을 마련했다. 특수·응급병상도 37곳에 122병상을 준비했다.

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745개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개 팀 240명으로 구성된 ‘도·시군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5·18재단 이사장 원순석씨

5·18기념재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원순석 광주 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사진)이 선출됐다. 재단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원순석 광주 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을 5·18기념재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원 이사장은 1980년 전남대 농과대학 학생회장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소요 및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박관현열사기



사업위원회 위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대한홍남순변회사 기념사업회 이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임채민 기자

전남매일 향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단시약 및 Molecular 의료기기 등 기자재 전문

생화학 검사

면역혈청학적 검사

혈액학 검사

노화학 검사

분자 진단 검사

www.samiltnc.com

주삼일티엔씨
Samil Treatment & Care Co., Ltd
[61901]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6번길 16 대표이사 신영태